



열차표 예매하러 온 사람들로 '복적복적' 설 연휴 기차표 예매가 시작된 9일 전북 전주시 전주역에서 열차표를 구매하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로 장내가 복적복적고 있다.

## 오늘 평준화 일반고 합격자 발표

도교육청, '전북 고교 입학전형 포털' 통해 확인 가능  
전체 1만584명 중 전주 6244명 · 군산 1566명 등 합격

18일 오후 2시에 배정  
전북교육청은 평준화지역 일반고 합격자를 10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합격자는 소속 중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전라북도고등학교 입학전형 포털 (http://sntp.b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합격자 발표와 관련 평준화지역(전주, 군산, 익산)에서 9,550명 모집정원에 전체 1만 584명이 지원해 전주 6,244명, 군산 1,566명, 익산 1,740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지원자 중 외국어고 · 국제고 · 자사고(이하 외국자) 합격자 534명과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 36명을 제외한 숫자이며, 전주 203명, 군산 139명, 익산 122명의 불합격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5일 오후 2시에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교육감, 도의회 교육위원장, 학부모 · 학생 · 언론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평준화일반고 합격자에 대한 학교 배정 공개 추첨회를 개최하고, 18일 오후 2시에 배정결과를 발표한다. 전주지역의 경우 원거리 통학문제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탄력적 정원조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배정 학교는 소속 중학교나 전북고입전형 포털(http://sntp.be.go.kr)에서 확인하면 되며 배정된 학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전기 · 후기 합격자의 모집 등록기간은 21일부터 25일까지며,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올해 고등학교 입학이 불가능하다. 한편 평준화지역 36개교를 제외한 97개 학교 중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들은 2월 7일~8일에 추가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모집 학교에 대한 안내는 도교육청 홈페이지나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평준화지역 고교 합격자 현황〉

지역	모집 정원(A)	지원자 총수(B)	외국자 합격자수(C)	합격자수		불합격(F) B-C-D-E-F
				정원내 일반 지원(D)	외국자 지원(E)	
전주	6,244	6,662	189	6,244	26	6,270
군산	1,566	1,930	220	1,566	5	1,571
익산	1,740	1,992	125	1,740	5	1,745
계	9,550	10,584	534	9,550	36	9,586

## 전북도, 인구감소 위기 탈출 '가동'

5개년 인구정책 대책 추진... 출생아수 증대 · 인구유출 방지 · 인구유입 확대 등 설정  
전북형 특화전략 '제2고향 만들기 프로젝트' 구체화로 외부인구 1000세대 이상 유치

전북도가 '제2의 고향 프로젝트'를 통해 저출산 등 인구 감소 위기 탈출에 나선 계획이다. 9일 전북도는 전날 열린 '전라북도 인구정책 민 · 관 협의체'를 통해 '머물고 살고 싶은 행복한 전북'을 비전으로 5개년 인구정책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추진해 온 인구정책을 총망라한 이번 종합대책은 전라북도형 인구정책 특화 전략 제시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재정계획을 수립, 인구정책 관련 정부 건의사항을 담았다.

먼저 도는 인구감소 원인으로 ▲저출산에 따른 인구의 자연감소 ▲청년 유출 등 인구유출 문제를 꼽고, 2017년 인구유출의 원인으로 '취업'에 따른 유출을 주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생애주기별로 저출산, 청년 · 일자리, 중장년 · 고령화 분야와 특화분야로서 농촌활력, 다문화, 도시재생 · 활력 등 6개 분야에 대한 목표와 추진방향, 장단기 추진계획을 세워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과제를 반영했다. 인구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로는 ▲출생아수 증대 ▲인구유출 방

지 ▲인구유입 확대 3가지 방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웠다. 특히 전북형 인구정책 특화전략으로 '제2고향 만들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중장년층의 인구유입 등의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인구유입 정책인 '제2고향 만들기'를 구체화 및 사업화해 외부인구 1000세대 이상을 유치하고 전라북도 대표 인구시책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도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5년간 6

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총 200개의 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저출산분야(77개 과제, 2조8412억)가 가장 많은 사업과 예산이 투입되며, 신규사업은 청년 · 일자리 분야(신규 13개 과제, 2569억)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승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종합대책 수립은 저출산 극복과 청년 · 일자리뿐만 아니라 중장년 · 고령화, 농촌활력, 다문화, 도시재생 · 활력까지 인구정책의 각 분야가 협업해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인구 총괄팀 신설, 전라북도 인구조례제정과 함께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대책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도, '레지오넬라증' 집중검사 추진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최근 레지오넬라증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겨울철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도내 대형 목욕탕을 중심으로 한 다중이용시설의 냉각탑수, 수도꼭지 냉 · 온수와 분수 등이며 레지오넬라균 검사결과 기준 초과 시설의 경우 청소와 소독 등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1~2주 후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레지오넬라증은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주로 대형건물 냉각탑수, 호흡기 치료기, 샤워기, 수도꼭지, 물식분수, 온수욕조 등의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균이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감염된다. 레지오넬라 폐렴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50세 이상 만성폐질환자, 면역저하자, 당뇨, 암 등 만성 질환자에서 주로 발생하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레지오넬라균은 25~45°C에서 번식하고 37~42°C에서 급증해서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는 여름철에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겨울철 사람들이 자주 찾는 목욕탕이나 찜질방, 레지오넬라증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시설(병원, 요양시설)이 주요 감염원이 될 수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레지오넬라균이 서식할 수 있는 냉각탑, 급수시설, 목욕탕 욕조 등의 환경에 대해 정기적인 청소 · 소독, 수온 및 소독제 잔류농도 관리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다함께 열어가자

# 새로운 모약의 시대

**7대 분야별 추진전략**

-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견인
- 신성장동력산업 구축으로 새만금 경제중심도시 도약
- 스마트 농생명산업 육성을 통한 첨단농업 메카 조성
- 누구나 향유하는 따뜻한 맞춤형 복지 실현
-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도시 구현
- 상생과 평화의 고품격 글로벌 문화관광 선도
- 혁신과 소통으로 시민체감형 열린시장 전개

김제시